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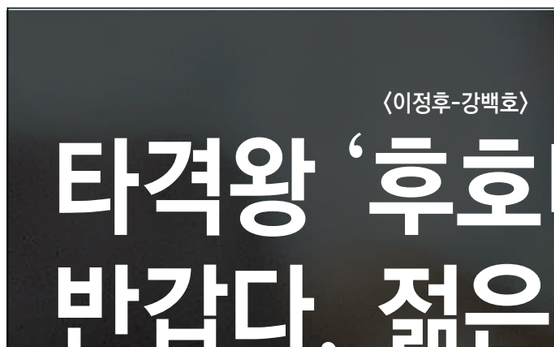
스포츠동아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www.sportsdonga.com

〈이정후-강백호〉

타격왕 '후호대전' 반갑다, 젊은피!

역대 최초 만23세 이하 선수들의 대결





타격 1위를 달리고 있는 키움 이정후는 KBO리그 전반에 활력소를 불어넣고 있는 20대 초반 젊은 선수들의 등장을 반겼다. 자신과 KT 강백호(작은 사진)의 타격왕 경쟁에 대해서도 팬들의 흥미를 돋우는 요소라는 데 동의했다. 그는 "세대교체가 이뤄지면 리그가 더 강해진다. (젊은 선수들이)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스포츠동아DB

23세 이정후-22세 강백호 숨막히는 경쟁
사실상 타율 1,2위 장악…세대교체 청신호
이정후 "리그 강하게 하는 바람직한 현상"

또래 친구들은 대학교에 다니거나 군에 복무하거나 사회초년병으로 막 첫 걸음을 뗄 나이. 한국야구의 간판으로 발돋움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정후(23·키움 히어로즈)와 강백호(22·KT 위즈)는 KBO리그의 미래에서 현재로 위상이 달라진 지 오래다. 그라운드 위에서의 기량은 물론 스타로서 책임감까지 갖췄기에 이들이 써내려갈 10년 이상의 역사가 기대된다.

타율은 한 경기의 맹활약 또는 침묵으로 크게 요동친다. 시즌 막판까지 쉽사리 타이틀 홀더를 예측할 수 없는 이유다. 18일까지 이 부문 1위는 이정후(0.354)다. 후반기 초반인 8월 중순부터 약 20일간 1군 엔트리에서 빠져있었는데, 복귀 이후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전반기까지만 해도 선두 강백호(당시 0.395)와 5푼 차이의 3위(당시 0.345)였으나, 9월 이후 31경기에서 타율 0.371(116타수 43안타)로 만회에 성공했다.

그 사이 강백호는 다소 기복을 드러냈다. 전반기 막판까지만 해도 프로 원년 이후 첫 4할 타율 도전의 꿈을 부풀렸으나, 이후 슬럼프가 거듭됐다. 지금은 다시 상승궤도에 올라타는 데 성공했다. 18일까지 타율은 0.349. 이정후와 5리 차이라 충분히 뒤집어볼 수 있다.

후반기 타율 1위 전준우(롯데 자이언츠·0.347)의 추격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최종 순위를 예측하긴 어렵다. 하지만 이대로 이정후와 강백호 중심으로 타격 레이스가 끝난다면, 한국야구의 새 역사가 쓰이게 된다.

KBO 공식통계업체 스포츠투아이에 따르면, 만 23세 이하 타자가 시즌 타율 1·2위를 나눠가진 사례는 없었다. 톱 2에 한 명이 포함된 것도 1992년 박정태(당시 롯데), 1997년 이승엽(당시 삼성 라이온즈), 2008년 김현수(당시 두산 베어스) 등 3차례뿐이라는 점에서 이정후와 강백호의 묵직한 존재감이 확인된다.

젊은 스타의 탄생에 목이 마른 한국야구계에는 이들의 동반 활약이 무척이나 반갑다. 이는 당사자들도 마찬가지. 이정후는 최근 인터뷰에서 '타격왕 경쟁자가 이정후와 강백호, 두 젊은 선수라는 점에서 팬들이 흥미를 느낀다'라는 질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미소를 지었다. 이어 "나와 (강)백호를 포함해 타팀에서도 20대 젊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프로 아닌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가 어리다고 선배들보다 못해야 한다는 것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정후는 이미 KBO리그의 얼굴 중 하나다. 이에 대한 책임감도 분명하다. 그는 "선배들이 닦아오셨던 것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한다. 누가 되면 안 된다.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아직 어리니까 괜찮다'는 생각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세대교체가 이뤄지면 리그가 더 강해진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손흥민 시장가치 1130억 원 '세계 24위'



토트넘 손흥민이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인 KPMG가 유럽프로리그 소속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시장가치에서 8230만 유로(약 1130억 원)로 24위를 기록했다. 1위는 엘링 홀란(도르트문트·1억4420만 유로·약 1980억 원)이 차지했고, 킬리안 음바페(파리생제르맹·1억3950만 유로·약 1916억 원)와 해리 케인(토트넘·1억2120만 유로·약 1665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사진은 최근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왼쪽) 씨가 출간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의 한 장면. 사진제공 | 수오서재

'사생활 논란' 김선호 후폭풍

여론 악화에 광고업계 발 빠르게 흔적지우기
'갯마을 차차차' 출연자들 인터뷰 취소 잇따라
'1박2일''슬픈열대' 등 방송·영화계도 촉각



김선호

'대세' 배우 김선호(35)가 전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등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소속사 측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밤 한 누리꾼이 '혼인을 빙자하고, 임신중절까지 종용한 K배우'라는 주장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내놓은 뒤 김선호가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이에 의혹 제기 3일 만인 19일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면서도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방송 관계자는 "소속사 측이 전날 변호사와 사태 수습책을 논의했다"면서 "사생활 문제여서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선호는 최근 주연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와 관련해 20일 진행키로 했던 언론 인터뷰를 급히 취소했다. 신민아, 이상이, 조한철 등 다른 출연자들도 "내부 사정"으로 잇따라 같은 조치를 취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그를 광고모델로 내세운 10여개 브랜드들도 이날 SNS와 유튜브 계정에서 사진과 영상을 급히 내리기도 했다.

그의 향후 활동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고정 출연 중인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2일 시즌4' 제작진은 격주로 이뤄지는 촬영 일정에 아직 여유가 있어 김선호 측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관련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슬픈 열대' '2시의 데이트' 등 그가 출연키로 한 영화의 제작진도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CJ CHEILJEDANG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